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헌신(獻身)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로기켄)합당한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자의 생활에 대해 교훈하면서 첫째로 헌신에 대해 말한다. 헌신(獻身)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재능과 목소리와 힘, 우리의 시간과 돈,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몸과 같이 움직인다. 몸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없다. 몸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의 소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恩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헌신을 ‘산 제사’라고 표현하였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대조되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주신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했으나, 또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도 상징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이런 헌신 곧 거룩한 삶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불렀다. 어떤 형식의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다.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노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헌신자가 행해야 할 바를 몇 가지 교훈한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경건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마태복음 12:3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다(행 2:40).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

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구원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의 생각의 변화이다. 그것이 중생이다. 또 ‘변화를 받으라’는 원어(메타모르프우스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함을 보인다. 성도의 영적 성장 곧 성화는 생각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에베소서 4:22-23도, “너희는 유혹의[속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너희의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계속 새롭게 되어]”라고 말한다. ‘새롭게 되어’라는 원어(현재부정사)도 계속성을 나타낸다. 우리의 구원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의 변화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성화(聖化)는 깨달음의 성숙 과정이다. 사람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도의 생각과 깨달음에는 변화가 있다. 생각의 성숙은 평생 진행될 것이다. 구원 얻기 전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중심적이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정욕적이었으나,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성경에 교훈된 대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내용이 선하며 그것을 믿고 행한 결과도 선하다.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仁慈)[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시편 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빈번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사야 55:8-9,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하고 비록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20:27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든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하였다고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디모데후서 3:15-17,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구원과 온전함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치 말고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신구약 66권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獻身)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재능과 목소리와 힘을,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에 보답하여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행 20:28; 고전 6:20).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를 믿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는 계속 생각의 변화,

생각의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곧 신구약 66권의 책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어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소망하고 그 모든 말씀을 힘써 행해야 한다. 헌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악질, 독종, 우박 재앙들**

[출애굽기 9: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악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데베르)[악성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그 이유로 재앙의 경고를 주셨다. ‘악질’은 가축의 악성 전염병을 가리킨다. 이것이 다섯 번째의 재앙 즉 악질 재앙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애굽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셨다. 애굽 왕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8-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췌킨 포레아크 아바부오스)[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과 같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풀무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고 그 재는 애굽 온 땅

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 즉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발하게 하였다. 이것이 여섯째 재앙 곧 독종 재앙이다.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3-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지금쯤은]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自高)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강박함 때문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심한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 곧 우박 재앙이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고 그들이 들에 둔 그 종들과 그 짐승들을 잃게 될 것이다.

[22-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치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

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뭇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셨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애굽 전국에 그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그 같은 일이 없었다. 들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싹이 났으므로 삼과 보리는 그 우박으로 상했다. 31절에 “꽃이 피었다”는 구절에서 “꽃”이라는 원어(기브울)는 “싹”이라는 뜻이다(NASB). 그러나 밀과 나뭇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

[33-35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다.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과 강박함은 인간 본성의 부패성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사람의 심령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다. 그는 바로에게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다.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과 온 인류는, 오직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

다. 하나님을 거역함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에게 불순종함이 죄요 죽음이요 불행이며, 그에게 순종함이 생명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 시편 91:1, 5-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너는 밤에 놀래고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

수요일 설교 땅을 심판하심

[사 24:1-13]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 . .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이 온전히 황무해지고 그 거민이 흩어지고 사회의 조직이 다 무너짐으로 혼란해질 것이다. 온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황무할 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14-23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 . .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대환난의 때이며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도 있는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과 땅의 열국의 왕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죄악된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며 또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온 세상에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그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버리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한다. 거기에 인생의 참 행복이 있다.

셋째로, 신약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이며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은 대환난을 경험할 것이다. 주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은 천재지변을 비롯하여 전쟁들, 기근들, 전염병들, 지진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목사들, 배교와 핍박들 등을 가리켰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계 13:10).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